

# 下廬 黃德吉의 『日用輯要』 考察

A Study of *Ilwongjipyo* by Hareou Hwang Duckgil

김 순 희 (Kim, Soon-Hee)\*

## ◁ 목 차 ▷

1. 서론	3.1 체재 및 구성
2. 편찬 배경	3.2 내용
2.1 『下學指南』과의 관계	4. 특징 및 의의
2.2 편찬 배경	5. 결론
3. 체제 및 내용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조선 후기의 중요한 도서편찬자 및 저술가인 下廬 黃德吉의 『日用輯要』에 관한 연구이다. 황덕길은 도서의 편찬과 간행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스승인 안정복이 초학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정리한 『下學指南』의 영향을 받아 『日用輯要』를 편찬했다.

『日用輯要』는 儒學을 처음 배우는 童蒙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여러 예절과 마음가짐, 학문을 대하는 자세 등에 대해 이전의 학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별·편집하여 완성한 교육 교재이다.

『日用輯要』와 『初學可考』는 황덕길이 편찬·저술한, 초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교재의 대표적인 책이다. 『初學可考』보다 『日用輯要』가 먼저 편찬되었는데, 『日用輯要』의 편찬을 마치고 나서 더욱 기초적인 초학자 교육 교재를 편집·저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므로 『初學可考』를 편찬했을 것이다. 『日用輯要』가 유학자로서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고 일상에서의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반면, 『初學可考』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황덕길의 『日用輯要』는 그의 사상과 학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엄밀하고 적극적인 도서편찬자로서의 황덕길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도서이다.

要語: 『日用輯要』, 『初學可考』, 『下學指南』, 황덕길

\* 충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siva@cnu.ac.kr)

접수일: 2014년 9월 11일 최초심사일: 2014년 9월 16일 심사완료일: 2014년 9월 27일

<ABSTRACT>

This is a study of “*Ilwongjipyo*” compiled edited by Hareou Hwang Duckgil who was one of the best book compiler and writer in the late Chosun Dynasty. As a typical Confucian scholar Hwang Duckgil was interested in compiling and publishing of books. He edited “*Ilwongjipyo*” and the idea of this was from the “*Hahockjinam*” for academic learners compiled by his teacher, Ahn JungBock. “*Ilwongjipyo*” is an educational textbook for academic learners. It was selected and edited with certain standards of etiquettes, manners and learning attitudes that people have to follow in daily life commented by former scholars. With “*Ilwongjipyo*” “*Chohockgago*” is also a representative educational textbook edited by Hwang Duckgil. “*Ilwongjipyo*” was earlier compiled than “*Chohockgago*”. The reason for this seems because there was the need for a book for academic starters. “*Ilwongjipyo*” was focused on standards of behaviour in our life while “*Chohockgago*” put more emphasis on ethics and morality. “*Ilwongjipyo*” is a compilation of all of Hwang Duckgil’s philosophy and studies. It is also enough to confirm that he was the best compiler.

Key words: *Ilwongjipyo*, *Chohockgago*, *Hahockjinam*, Hwang Duckgil

## 1. 서론

본고는 下廬 黃德吉(1750~1827)의 저술 및 편찬서를 검토하는 일련의 작업 과정 중의 하나이다. 조선 중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였던 황덕길은 스승인 順菴 安鼎福(1712~1791)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았다. 스승 安鼎福의 영향은 학문적인 영역은 물론, 독서하는 방법 및 책을 대하는 태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책을 편찬하고 저술하는 것까지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본고의 연구 대상인 『日用輯要』이다.

『日用輯要』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초학자들, 즉 儒學을 처음 배우는 童蒙들을 대상으로 유학자로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할 여러 예절과 마음가짐, 학문을 대하는 자세 등의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 이전의 학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별·편집하여 완성한 교육 교재라고 할 수 있다. 황덕길은 초학자들의 교육에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 이들을 위해 만든 교재가 『日用輯要』만이 아니다. 그는 『初學可考』라는 편찬서를 저술하여 『日用輯要』와 함께 교육에 사용했다.<sup>1)</sup>

황덕길이 스승인 안정복의 『下學指南』에 영향을 받아 『日用輯要』를 편찬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日用輯要』는 통시적으로는 『下學指南』과, 공시적으로는 『初學可考』와의 연계성을 고찰한다면 그 의의와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지금까지 『下學指南』을 통해 안정복의 교육에 대한 사상과 학문의 성격에 대한 연구는 이미 축적되어 있는데, 당대의 실학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 검토되어야 할 여지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sup>2)</sup>

본고의 텍스트인 『日用輯要』는 그의 문집인 『下廬集』에는 실려 있지 않고 필사본<sup>3)</sup>으로만 전하고 있다. 이 필사본은 刊寫地, 刊寫者, 刊寫年이 未詳이다. 달필의 書寫者가 行書로 썼는데, 중간 이후에 2명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필체가

1) 김순희, “下廬 黃德吉의 『初學可考』 고찰,”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2)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14, 순암 안정복』(국립중앙도서관, 2012), 231.

3) 黃德吉, 『日用輯要』(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17-167).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서지학적 관점에서 『日用輯要』의 성격 및 특징을 고찰하고, 나아가 이 책이 황덕길이 편찬하고 저술한 여러 도서들 중에서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 2. 편찬 배경

『日用輯要』의 편찬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下學指南』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황덕길이 『日用輯要序』에서 밝힌 내용을 깊이 있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2.1 『下學指南』과의 관계

안정복은 학문 추구의 과정에서 일상에서의 공부를 말하는 ‘下學’을 매우 중시했다. 이에 영향을 받아 황덕길이 ‘下廬’라는 호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下學指南』은 안정복이 29세(1740, 영조 16, 庚申)에 편찬한 것으로 안정복의 저술에 있어서 최초의 저서이다.<sup>4)</sup> 그런데 이 시기의 『下學指南』은 완성본이 아니다. 안정복은 73세(1784, 정조 8, 甲辰)되던 해에 이 책을 수정·완성했다. 최초의 저술이 거의 말년에 이르러 다시 수정되어 완성되었다는 점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때는 그가 『東史綱目』을 교정한 1년 후의 일이고, 『天學考』를 저술하기 바로 전해였다는 것을 생각하더라도 그의 학문이 완결되던 때에도 결코 그 의미를 잃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sup> 따라서 『下學指南』은 안정복의 일생과 함께한 책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4) 이채구, “안정복의 『下學指南』,” 『순암 안정복의 서학인식과 교육사상』 (순암선생 탄신300주년 기념사업회, 2012), 309.

5) 윤남한, “『下學指南』 사본,” 『순암 안정복의 서학인식과 교육사상』 (순암선생 탄신300주년 기념사업회, 2012), 254.

것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안정복의 수제자였던 황덕길은 스승을 위해 지은 祭文中에서

그러나 아직도 선생의 10분의 7이 남아 있는데, 실천하신 자취를 살펴본다면 『下學指南』의 條例에 있고, 行事하신 일은 『동사강목』의 筆削에 있다.<sup>6)</sup>

라고 말하여 안정복의 학문의 근간이 『下學指南』에 있음을 천명했다. 그리고 이 ‘下學’의 가르침은 그대로 황덕길에게 이어졌다.

편지 중에 독실하게 공부하는 뜻이 있으니 감탄해 마지않는다. 이 마음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어찌 이루지 못하리오. 우리 선비들의 가장 중요하게 공부할 것은 오로지 下學에 있다.<sup>7)</sup>

이 편지는 안정복이 癸卯年(1783, 정조 7)에 써서 황덕길에게 보낸 것이다. 이 해에 안정복은 나이 72세인 노년이었으며, 황덕길은 33세였다. 황덕길이 『日用輯要』를 저술한 것은 그의 나이 38세(1787, 정조 11, 丁未) 때이다. 장년의 나이에 들어서자 그는 자신의 학문을 일부 반성하면서 학문의 기본적 자세에 대해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까닭으로 황덕길은 이전의 유학자들이 학동을 가르칠 때 사용하던 교재를 다시 한 번 보게 되었고, 그 결과 『日用輯要』가 완성된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初學可考』가 저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sup>8)</sup>

황덕길은 안정복의 遺集을 교정하겠다는 그의 손자 安喆重의 말을 듣고 『下學指南』도 함께 간행해야 함을 말하기도 했다.<sup>9)</sup>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안정복이 보낸 이 편지는 『日用輯要』와 『初學可考』의 편찬 및 저술에 결정적인 영향을

6) 『下廬集』 권 12, 「題順菴安先生文」. “然猶存先生之七分者 究諸踐迹則下學條例也 見之行事則東史筆削也.”

7) 『順菴集』 권 8, 「答黃耳叟書」. “書中爲學槪槪之意 欽歎無已 此心不懈 豈有不成 吾儒着緊用工 專在下學.”

8) 김순희, “下廬 黃德吉의 『初學可考』 고찰,”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232.

9) 黃德吉, 『下廬集』 卷2, 書, 「答安重吉」. “先生遺集將以校正云 … (中略) … 遺集外下學指南李子粹語等諸篇 表表可爲後學學則 次第修正.”

주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안정복과 황덕길이 긴밀한 사제간이었고, 『下學指南』의 영향을 받아 『日用輯要』를 편찬한 과정이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황덕길은 『日用輯要』를 편찬하기 전에 안정복의 『下學指南』을 충분히 보고 읽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체재와 구성까지 모방하지는 않았다. 우선 살펴보면 『下學指南』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首卷: 日用篇 ; 夙興章, 日用章, 夜寐章

上卷: 第1 讀書 ; 讀書之義章, 讀書之序章, 讀書之法章, 讀小學四書章,  
讀諸經章, 讀性理諸書章, 讀史章, 尙論章, 附寫字章,  
附作文章

第2 爲學 ; 總論章, 立志章, 變化氣質章, 窮理章, 力行章, 存養章,  
省察章, 克治章, 敦篤章, 論敬章, 論誠章, 異端章

第3 心術 ; 誠意章, 正心章, 養氣章, 操存章, 喜怒章, 逸慾章, 器量章,  
誠實章

下卷: 第4 威儀 ; 總論章, 敬身章, 正容章, 謹言章, 衣服章, 飲食章,

第5 正家 ; 總論章, 孝敬章, 居喪章, 祭祀章, 友愛章, 夫婦章, 教養章,  
冠禮章, 婚禮章, 敦睦章, 禦下章, 治產章, 儉約章,

第6 處己 ; 持身章, 處事章, 操守章, 義命章, 改過章, 辭受取與章,  
出入往來章,

第7 接人 ; 長幼章, 師友章, 接賓章, 待人章, 篤義章, 處世章, 居鄉章

第8 出處 ; 總論章, 事君章, 治道章, 居官章

안정복은 『下學指南』을 편찬하면서 선학들의 저서 속에 있는 말들을 발췌하여 나열했으나, 전편을 통하여 요소마다 각주를 통하여 저자의 의견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sup>10)</sup> 이러한 편찬 방식을 황덕길도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 그러나

10) 이채구, “안정복의 『下學指南』,” 『순암 안정복의 서학인식과 교육사상』 (순암선생 탄신300주년 기념사업회, 2012), 312-314.

두 책의 체제를 비교해 보면 『下學指南』은 서론격인 「일용편」에서 大綱을 제시하였고, 다음에 상하의 2권으로 나누어 내용을 수록했는데, 사실상 6개의 분야로 구분한 것이다. 이 부분이 『日用輯要』와 다른 점이다.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황덕길은 확실한 의도를 갖고 本錄과 續錄, 附錄으로 분류하여 편찬하였다. 이것은 『下學指南』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그친다면 책으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인식하에, 스승의 본의는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저술을 편찬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2 편찬 배경

황덕길은 이 책을 편찬하게 된 이유를 「日用輯要序」에서 말하였다. 『初學可考』에 대해서는 序文을 남겨 놓지 않았는데, 이 책의 경우, 서문에서 편찬 배경을 확실하게 언급하였다.

玉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지 못하고, 사람은 배우지 않으면 道를 알지 못한다. 道가 잠시라도 떠나면 몇몇한 윤리가 곧 가려진다. 그래서 옛날에는 집안에 塾이 있었고, 黨에는 庠이 있었으며 術에는 序가 있고 나라에는 學이 있어서 六德과 六行과 六藝로 가르쳤는데 날마다 사용하는 것을 배웠다. 나는 어려서부터 책을 보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고 말뚝을 하면서까지 나란히 하고자 했으나 그렇게 되지 못했다. 나이가 어느새 이렇게 되어, 감히 이전 유학자들이 어린 학동을 가르치던 여러 서적을 모아 보았다. 이 책은 무릇 18편인데 庸言과 庸行을 말한 것이다. 『주역』에 ‘옛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덕을 쌓는다.’고 했으니 아마도 날마다 행동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살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sup>11)</sup>

황덕길의 기본적인 인식은 사람은 한시라도 유학의 道를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대 중국에서 지방과 서울에 설치했던 교육기관에 대한 제도

11) 『下廬集』 권10, 序, 「日用輯要序」. “玉不琢不成器 人不學不知道 道須臾離 彝倫乃斁 古之家有塾 黨有庠 術有序 國有學 教之以六德六行六藝 而學日用也 余少也 呻其佔畢 跂焉思齊 未有獲也 齒髮遽如許矣 乃敢哀輯先賢氏訓蒙群書 書凡十有八篇 言庸學也 行庸行也 易曰 前言往行以畜德 庶或自省於日用之功云爾.”

인 黨序之法을 인용하여 예전부터 교육이 있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육하던 내용이 智·仁·聖·義·忠·和의 六德과 孝·友·睦·仁·任·恤의 六行과 禮·樂·射·御·書·數의 六藝였고, 이 모든 교육이 ‘日用’에 필요한 사항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 있었음을 말했다. 이 말은 이 책의 제목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편찬하고자 했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황덕길이 선정한 18편의 내용이 바로 ‘庸言’과 ‘庸德’이라는 말도 같은 의미이다. 따라서 이 책을 편찬한 목적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덕목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전의 학자들이 제시한 교육의 내용을 선별하여 모아 놓은 것임이 확실해졌다. 선별의 대상은 중국의 유학자들이었으며, 한국의 학자들이 말한 내용은 수록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러한 책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황덕길은 공부에는 적절한 시기가 있으므로 이 시기를 놓치면 올바른 인간이 되고자 한다고 하고 그렇게 될 수 없음을 말했다.

살펴보건대 사마온공이 ‘자식을 기르면서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비의 허물이다.’라고 했다. 무릇 아버가 된 자는 아이를 바르게 가르쳐 덕성을 순하게 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아이가 장성했을 때는 가르치려 해도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근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예의와 법도를 어그러뜨리게 되더라도 단속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니 이는 필연적인 추세이다. 자식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히 먹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의리의 방법으로 인도해야 하니 반드시 자식을 가르칠 때에는 齋規를 법으로 삼아야 한다.<sup>12)</sup>

이와 같이 황덕길은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평생 지켜야 할 도리를 익히게 하기 위해, 이전의 학자들이 말한 것 중에서 관련 있는 항목을 선별하여 이 『日用輯要』를 편찬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2) 黃德吉, 『日用輯要』, 『眞西山教子齋規』條. “按 司馬溫公曰 養子不教父之過 夫爲人父者 必蒙養以正 馴致德性 苟或不然 則及其長也 雖欲教之 有扞格之患 而甚至於悖禮敗度 莫之檢束 此必然勢也 教子者當自能食能言爲始 導之以義方 必以教子 齋規爲法.”

### 3. 체제 및 내용

#### 3.1 체제 및 구성

##### 3.1.1 구성

『日用輯要』의 체제는 本錄, 續錄, 附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록된 18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本錄<sup>13)</sup>: 朱子訓學齋規·眞西山教子齋規·程董二先生學則·朱子白鹿洞教條·司馬溫公居家雜儀·呂東萊先生宗法條目·朱子居喪雜儀·韓魏公家祭式·陸梭山居家制用篇·呂藍田鄉約 (10편)

續錄: 程端禮讀書次敘法·朱子讀書法·呂居仁作文法·朱子作文法·朱子作詩法·姜白石書譜·朱子論科舉文·胡澹菴勤學誠 (8편)

附錄: 金華鄭氏家範·倪正父經鉅堂家訓 (2편)

이 중에서 본록의 眞西山教子齋規와 程董二先生學則, 朱子白鹿洞教條, 呂藍田鄉約 등과 속록의 程端禮讀書次敘法, 朱子讀書法 등은 『順菴集』 권14와 15의 「雜著」에도 수록되어 있다.

『日用輯要』의 체제를 살펴보면 황덕길이 이 책을 편찬하면서 확실한 의도와 원칙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本集에서는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도리와 예절 등을 강조한 가르침을 선별하여 수록했고, 속록에서는 유학자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언급한 자료를 모아 놓았다. 속록의 내용은 대부분 讀書, 作文, 作詩. 書寫, 科舉文 등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의 사회에서 유학자로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사항이었다. 그리고 부록에는 두 편의 家訓을 수록하여 본집 및 속집의 내용과는 차이를 두었다.

13) 원문에는 없는 말인데, 논의의 편의를 위해 사용한다.

표지에는 큰글씨로 “日用輯要全”이라고 쓰여 있다. 각 항목의 기술 방식은 상란에서 1자 띄워 인용한 글의 제목을 쓰고, 그 중의 소항목은 2자 내려 썼다. 제목 아래에는 小字雙行으로 인용한 글의 저자의 성명과 字號를 기록해 놓았다. 사정상 원문을 전부 수록하지 못하고 일부를 발췌했을 때에는 제목 아래 ‘畧’이라고 첨기해 놓았다. 인용이 끝나면 인용한 글에 대한 다른 학자의 언급을 수록해 놓기도 했는데, 주자의 말이 가장 많고 중국의 다른 유학자들을 인용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按’으로 시작되는 글을 첨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혀 놓았다. 이것이 황덕길의 사상 및 편집의도를 알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각 항목에서 인용한 이전 학자들의 말 중에서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내용 아래에 소자쌍행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혀 놓음으로써 적극적인 편찬자의 자세를 보여준다. 예를 들면 『韓魏公家祭式畧』의 ‘祭儀’에서 제사를 마치면 ‘자손들에게 명하여 제사음식을 거두고 물러난다.’<sup>14)</sup>라는 내용의 아래에 다음과 같이 해설했다.

飲福과 제사에 사용한 고기를 나누어 받던 受胙의 예는 일반 가정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하지 않았다. 지금은 다만 제사를 지내고 남은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기만 해도 된다.<sup>15)</sup>

이와 같이 황덕길은 예전부터 내려오는 예절을 강조하는 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사정에 맞는 예절을 가르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필사본이어서 그렇지만 몇 군데에서 교정한 곳이 보인다. 교정할 때에는 교정 부호를 사용하였으며, 어떤 경우는 틀린 글자 위에 굵게 써 놓은 곳도 있다. 續錄이 시작되기 바로 전 面에서는 무려 15자가 누락되어 있음을 밝히고 원래의 있을 곳을 지적하기도 했다.<sup>16)</sup>

14) 黃德吉, 『日用輯要』, 『韓魏公家祭式畧』, ‘祭儀’. “命諸子孫等 撤饌訖退.”

15) 黃德吉, 『日用輯要』, 『韓魏公家祭式畧』, “飲福受胙之禮 私家久已不行 今但以祭餘酒饌 命分飲食之可也.”

16) 黃德吉, 『日用輯要』, “周禮文黨正族師以相勸導者實鄉約 此十五字當在上之法上.”

## 3.2 내용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항목에 따라 간략히 소개함으로써 조선 시대의 유학자들이 추구했던 학문과 일상의 기본적인 자세가 무엇인지를 알았다.

### 3.2.1 本錄

#### 3.2.1.1 「朱子訓學齋規」<sup>17)</sup>

朱熹의 이 齋規는 「童蒙須知」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齋規의 내용은 황덕길의 『日用輯要』 편찬의 의도와 일치한다. 細目을 살펴보면, 衣服冠履 第一, 言語步趨 第二, 灑掃涓潔 第三, 讀書寫文字 第四, 雜細事宜 第五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일상 생활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황덕길은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지 않고 朱子の 다른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모름지기 자식과 제자를 가르치는 자들은 반드시 아이들에게 먼저 이 齋規를 읽힌다면 모습이 단정해지고 심지가 안정되어 대략 가르치고 배우는 절도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외우고 익힘이 익숙해지고 일상에서 행할 수 있게 된 뒤에 비로소 小學을 읽는다면 아마도 순서를 알 수 있게 되고, 나아갈 곳을 알게 할 수 있다.<sup>18)</sup>

이처럼 朱子の 생각이 황덕길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것이 편찬의 의도와 동일하였으므로 다른 말을 덧붙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17) 『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제13책, p.371. 「童蒙須知」條에 의하면 「訓學齋規」는 「童蒙須知」의 다른 이름이다. “童蒙須知 一作訓學齋規.”

18) 黃德吉, 『日用輯要』, 「朱子訓學齋規」條. “須令教子教弟子者 必使先讀此規 則形容端正 心志安定 畧知教學之儀 誦習既熟 服行日用 然後始讀小學 則庶得其序 而可使知其向方矣.”

### 3.2.1.2 「眞西山教子齋規」

송대의 유학자인 西山 眞德秀의 齋規이다. 진덕수는 예절, 앉는 법, 걷는 법, 서있는 법, 말하는 법,揖하는 법, 글 읽는 법, 글씨 쓰는 법 등의 8개 항목에 대해 초학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했다. 황덕길은 按에서 이러한 사항을 초학자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밝혔다.<sup>19)</sup>

### 3.2.1.3 「程董二先生學則」

송대의 유학자인 程端과 董銖가 공동으로 편찬한 초학자 교육 지침이다. 내용은 대략,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해야 할 일, 언어 및 의복, 나들이, 독서, 교제하는 법 등 여러 항목을 설정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황덕길은 옛사람의 말인 ‘글을 가르치는 선생은 쉽게 얻을 수 있지만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은 쉽게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제자를 가르치는 자들이 반드시 이 말을 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sup>20)</sup>

### 3.2.1.4 「朱子白鹿洞教條」

이 教條의 내용은 五倫에서부터 시작하여 爲學之序, 修身之要, 處事之要, 接物之要 등의 항목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모두 經書에서 인용한 것인데 간략하다. 다만 마지막에 朱子가 이 교조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황덕길은 이에 대해 먼저 송대의 유학자인 雙峰 饒魯의 말을 인용하여 이 교조의 의의에 대해 말하고, 이어서 退溪 李滉의 말을 인용하여 오류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19) 주 12) 참조.

20) 黃德吉, 『日用輯要』, 「程董二先生學則」條. “古人云 經師易 人師難之責 必以是爲法.”

### 3.2.1.5 「司馬溫公居家雜儀」

『資治通鑑』의 저자인 司馬光이 특히 한 집안을 이끌어 나가는 家長이 해야 할 바를 정리한 내용이다. 그중에서도 6세에서 10세에 이르기까지의 아이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세심하게 제시했는데,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각각 가르쳐야 할 사항을 나누어 놓은 것이 주목된다. 그리고 하인을 다루는 법, 여종들을 다스리는 법 등은 다른 항목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이다.

황덕길은 사마광의 이러한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按에서 먼저 주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 「居家雜儀」의 의미와 가치를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일찍이 (사마광이) 「居家儀」 1편을 지었는데 바로 가정에서 날마다 쓰는 의례와 준칙으로서, 漢魏 시대 이래로 여러 法家들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자가 「家禮」로 편집하여 후세에 가장이 되는 자들을 가르쳤으니 이것에 의해서 가정의 범도를 세운다면 집밖을 나가지 않아도 가르침을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여기에 있을 것이다. 여기에 있을 것이다.<sup>21)</sup>

마지막에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어느 정도 감정을 실어 말하는 예는 황덕길의 다른 글에서는 보기 힘든 표현법으로, 그만큼 사마광의 가르침에 동의하고 존중한다는 뜻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3.2.1.6 「呂東萊先生宗法條目」

이 조목은 송대의 유학자인 呂祖謙이 宗中の 사람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祭祀, 婚嫁, 生子, 租賦, 家學, 合族, 賓客, 慶弔, 送終, 會計, 規矩, 中庭小牌約束, 進退婢僕約束 등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조목은 문중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21) 黃德吉, 『日用輯要』, 「司馬溫公居家雜儀」條. “嘗著居家儀一篇 則有家日用之儀則也 自漢魏以來 諸法家之所未及者 故朱子編之家禮 以教後世爲家長者 依此立爲家法 則不出家而成教於國者 其在斯與 其在斯與.”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황덕길은 이 조목에 대해 옛사람들이 친족이 화합하던 방법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수록한 것에서 황덕길의 편찬 의도가 단지 초학자에게 학문을 가르치려고만 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3.2.1.7 『朱子居喪雜儀』

이 항목은 喪禮를 치를 때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朱子が 경전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런데 황덕길은 朱子が 제시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附喪餘雜儀』라는 이름 아래 몇 가지 사항을 추가해 놓았다. 황덕길이 추가로 인용한 경전은 『禮記』의 『祭義篇』과 『內則』, 『論語』, 『孟子』 등이다. 황덕길이 인용한 『맹자』의 내용은 ‘큰 효도는 죽을 때까지 부모를 사모하는 것이다.’<sup>22)</sup>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삼가 朱子의 『居喪雜儀』에 의거하여 經傳에서 약간의 조항을 모아 그 뒤에 붙여 놓으니, 읽는 자들은 반드시 감동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다고 말할 뿐이다.<sup>23)</sup>

라고 하였다. 이러한 장면에서 적극적인 도서편찬자로서의 황덕길의 면모를 알 수 있다. 비록 존중의 대상인 朱子が 정리했다고 하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하기를 마다하지 않은 점은 도서 편찬의 관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2.1.8 『韓魏公家祭式畧』

송대의 문신이었던 韓琦의 집안에서 전하는 제사 의식을 요약한 것이다. 원래의 글을 요약했음에도 다른 항목에 비해 가장 길다. 내용은 正祭, 節祀, 墓祭,

22) 『孟子』, 『萬章 上』, “大孝終身慕父母.”

23) 黃德吉, 『日用輯要』, 『朱子居喪雜儀』, “謹依朱文公居喪雜儀 采摭經傳畧干條 以附其後 讀者未必無感慕之心云爾.”

齋戒, 祭儀, 土地, 告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사의 종류 및 제사지내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중에서 ‘祭儀’條는 단일 조목으로 길이가 가장 긴데, 그 이유는 제사를 지내기 하루 전에서부터 해야 하는 준비와 신주를 모시는 법, 구체적인 제사의 절차 및 제사를 마치는 과정까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3.2.1.9 「陸梭山居家制用篇」

송대의 유학자인 陸九韶가 집안을 다스리는 家長이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예의범절이나 집안의 살림을 맡은 자들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星湖 李瀼에서 안정복으로 이어지는 實學의 전통을 계승한 황덕길의 일면을 볼 수 있어 주목된다. 按에서 ‘집안 살림을 경영하는 도리는 일상에서 잠시라도 없앨 수 없다.’<sup>24)</sup>라고 하여 육구소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 3.2.1.10 「呂藍田鄉約」

『呂氏鄉約』으로 널리 알려진 송대 呂大臨의 향약이다. 여기에서 황덕길은 자신의 견해를 추가하여 당시의 형편에 맞는 향약의 예절을 제시하였는데, 조선시대 향약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로 보인다.

## 3.2.2 續錄

황덕길은 처음부터 『日用輯要』를 편찬하면서 본록과 속록을 나누어 저술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 續錄에의 내용은 모두 유학자의 기본적 소양인 독서, 작문, 서법 등에 대한 내용만을 수록하고 있다. 그리고 속록의 마지막 항목은

24) 黃德吉, 『日用輯要』, 「陸梭山居家制用篇」. “按 制產之道 有家日用之不可暫廢也.”

『胡澹菴勸學誠』인데, 오직 시간을 아껴 공부하라는 내용이니 황덕길이 초학자들에게 올바른 학문의 자세를 간곡하게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3.2.2.1 「程端禮讀書次敘法」

위의 「程端禮讀書次序法」에서는 8세에 공부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性理學에 관계있는 글자의 字訓을 익혀야 한다는 것에서부터, 본격적으로 학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읽어야 할 책의 순서를 제시해 놓았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8세에서 四書三經과 『儀禮』, 『禮記』, 『周禮』 등을 읽는데 6~7년 정도 공을 들이면 15세를 전후하여 일단 공부를 마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15세부터 본격적으로 학문에 전념할 경우의 독서 순서를 밝혀 놓았는데, 이 과정은 이전에 읽은 경서의 공부를 심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경전에 대한 공부를 마치면, 그 뒤에 역사서, 『通鑑』, 韓愈의 문장, 楚辭 등을 읽어야 할 것을 말했다. 그리고 21~22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문장을 짓는 법을 배우고 經問, 經義, 古賦, 古體, 制誥, 章表 등을 배워야 한다<sup>25)</sup>고 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황덕길은 정단례가 제시한 독서의 순서가 주자의 문하에서 교육하던 뜻을 깊이 얻었다고 평가하면서 공부를 시작하는 선비들은 반드시 이를 定式으로 삼아야 한다<sup>26)</sup>고 강조했다. 정단례는 원대의 유학자였으므로 주자에게 직접 배우지는 못했으나 주자의 학문을 승계한 학자로 평가받는다. 그런데 황덕길은 주자를 가장 신봉하는 유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서의 순서를 말하는데 있어서는 주자보다 정단례의 견해를 앞세웠다. 황덕길은 속집의 첫머리에 정단례가 말한 「程端禮讀書次序法」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 「朱子讀書法」이라는 항목을 이어 놓았다. 황덕길이 판단하기에 정단례가 제시한 독서의 순서가 가장 잘 정리되어 있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선정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도서 편찬자로서의

25) 黃德吉, 『日用輯要』, 「程端禮讀書次序法」. “又通鑑韓文楚辭既讀之後 約才二十歲二十一二歲 學作文經問經義古賦古體制誥章表.”

26) 黃德吉, 『日用輯要』, 「程端禮讀書次序法」. “程氏讀書次序 深得朱門教人之意 幼學之士必以此爲定式.”

황덕길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 3.2.2.2 「朱子讀書法」

이 「朱子讀書法」은 주자가 명확하게 이름을 붙여 지은 글이 아니다. 황덕길이 「程端禮讀書次序法」을 선정하여 배열한 뒤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 주희의 글에서 독서에 관한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자에 대한 황덕길의 존중을 알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그가 『日用輯要』를 편찬하는데 있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단례가 제시한 독서의 차례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여기에 주자의 견해를 덧붙이면 더욱 완성도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황덕길은 ‘삼가 주자가 남긴 가르침에서 모아서 독서하는 자들로 하여금 한결같이 이 법을 따르게 한다면 아마도 그 방향을 알게 할 수 있을 것이다.’<sup>27)</sup>라고 하여 이 항목이 수록된 경위를 밝혔다.

### 3.2.2.3 「呂居仁作文法」

송대의 유학자인 呂本中이 제시한 작문법이다. 총 8개의 조목만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도 간략하다. 여기에는 황덕길이 첨부한 내용이 없지만, 아래의 「朱子作文法」에서 두 작문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 3.2.2.4 「朱子作文法」

이 글도 주자가 명확하게 제목을 붙여 지은 것이 아니고 황덕길이 주자의 講說 중에서 선별한 것이다. 그런데 주자는 작문의 폐해를 지적하였지만 황덕길은 작문의 가치를 인정하는 견해를 보인다.

27) 黃德吉, 『日用輯要』, 「朱子讀書法」. “謹爲蒐輯朱子遺訓 使讀書者一遵此法 庶或知其方爾.”

주자가 말하기를 ‘배우는 자의 병폐는 먼저 작문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크다. 작문을 배우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지 못하여 의리를 깊이 탐구할 겨를이 없게 된다.’라고 하였다.

대개 작문이 학문에서 먼저 힘써야 할 것은 아니지만, 군자들이 글을 지어 세상을 인도하고 후세를 가르치는 것은 일상에서 빠뜨릴 수 없다. 옛사람들에게 體制와 規模가 있었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지 않을 수가 없다. 여본중의 논의가 오히려 미비한 점이 있어서 삼가 주자가 평소에 말한 것을 감히 모아 작문법을 편집하였으니 글을 짓는 자들이 지켜야할 법으로 삼는다면 아마도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sup>28)</sup>

여기에서 주자의 말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견해를 갖고 있던 황덕길의 면모를 알 수 있고, 또한 작문, 즉 문장의 가치를 인정했던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다.

### 3.2.2.5 「朱子作詩法」

앞의 「朱子讀書法」과 「朱子作文法」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 글도 주자의 講說 중에서 詩에 대한 것을 발췌하여 편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항목은 9개의 조목으로 되어 있으며 내용도 간략하다. 황덕길은 按에서 주자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조하면서 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확실하게 나타냈다.

詞章의 학문이 생겨나고부터 아름다움만을 닦고 정밀하고 교묘함을 지극히 하면서 늙을 때까지 이를 일삼아 정력을 크게 해친다. 그래서 세속에서 향하는 것이 날마다 달라지고, 선비들의 습성이 날마다 야박해지니 어디에서 興할 수 있으며 볼 수 있겠는가. 주자가 詩를 논한 것은 분명히 바른 법식이다.<sup>29)</sup>

문학의 가치를 학문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기고 있던 주자의 생각이 분명히

28) 黃德吉, 『日用輯要』, 「朱子讀書法」. “朱子曰 學者之病最是先學作文 心不寧靜 不暇深究義理 蓋作文固非學之先務 然君子作辭 隔世詔後者 日用之所不可闕也 自有古人體制規模 則學者亦不可不知也 呂氏之論 猶有未備者 謹哀朱子平日講說 編作文法 作文者有所遵式焉 則其庶乎不悖於理云.”

29) 黃德吉, 『日用輯要』, 「朱子作詩法」. “自夫詞章之學作 而競其華靡 極其精巧 窮年從事 大費精力 俗向日以渝 士習日以薄 惡在乎可興而可觀哉 朱子論詩 大有正法.”

드러나 있는 말이다.

### 3.2.2.6 「姜白石書譜」

이 항목은 송대의 학자인 姜夔가 지은 『續書譜』에서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황덕길은 제목 아래에 小字로 ‘白石의 이름은 堯章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白石은 姜夔(1155~1235)의 號이고 강기의 字가 堯章이다.<sup>30)</sup> 내용은 글씨 쓰는 법과 글씨를 쓸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황덕길은 이 글 아래에 王羲之의 「永字八法」을 첨부해 놓았다. 이것도 역시 초학자들을 배려하여 글씨쓰기의 기본인 「永字八法」을 덧붙여 놓은 것이다.

대개 글자 공부도 학문을 하는 하나의 단서가 되지 않음이 없다. 「姜白石書譜」와 「永字八法」은 진실로 규모가 있으니 이 방법에 능통할 수 있다면 마음이 바르고 글씨도 바르게 될 수 있어 아마도 뜻을 상하게 하는 근심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sup>31)</sup>

황덕길은 서예도 학문의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올바른 마음을 가져야 글씨도 올바르게 될 수 있고, 서예로 인해 학자의 의지를 손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 3.2.2.7 「朱子論科舉文」

이 항목은 주자가 科舉에 합격하기 위한 공부와 과거시험에서 요구하는 문장만을 배우고 익히는 당시의 폐해를 지적한 내용이다. 황덕길도 이에 적극 동조하여 과거시험을 위한 작문 공부는 학자의 자세를 해칠 수 있음을 경계했다.

30) 『中國文學家大辭典』(臺灣: 世界書局, 民國75), 753.

31) 黃德吉, 『日用輯要』, 「姜白石書譜」. “蓋字學未嘗不爲學之一端也 書譜及八法 儘有規模 果能此道 則心正而必正 庶不至於喪志之患矣.”

### 3.2.2.8 「胡澹菴勤學誠」

송대의 학자인 胡銓이 학문에 힘쓰도록 경계한 내용이다. ‘愛日’, ‘競時’, ‘繼晷’ 등의 3조목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시간을 아껴서 공부에 전념하라는 가르침이다.

호담암이 학문을 권면하면서 낮과 밤, 시간에 대해 자세히 말한 것은 하루 24시간의 밤낮, 어느 시간이나 혹시 잠깐 사이라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배우는 자들은 진실로 이를 유념하고 부지런히 힘써 한 때라도 쉬지 않은 뒤에야 아마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을 것이다.<sup>32)</sup>

황덕길이 이 글을 속록의 마지막에 배열한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 항목은 「朱子訓學齋規」에서 시작한 『日用輯要』의 결론인 것이다.

### 3.2.3 附錄

附錄에는 「金華鄭氏家範」과 「倪正父經鉏堂家訓」이 수록되어 있다. 「金華鄭氏家範」은 명대의 鄭濂 가문의 가훈이고, 「倪正父經鉏堂家訓」은 송대 倪思 가문의 가훈이다. 이 두 편의 가훈을 부록에 수록한 것에서도 편찬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던 황덕길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부록에 실린 두 편의 내용은 본록이나 속록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日用輯要序」에서도 본록과 속록에 18편이 수록되어 있다고 언급하였지 부록 2편에 대한 말은 없는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이것이 포함되지 않았다가 뒤에 보완하는 과정에서 첨부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 두 편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金華鄭氏家範」은 집안의 子弟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제시해 놓은 반면, 「倪正父經鉏堂家訓」은 한 집안을 경제적으로 경영하는 방법을 말하였다.

32) 黃德吉, 『日用輯要』, 「胡澹菴勤學誠」. “澹菴勉學 詳言日夜及時 則一日十二時晝夜百刻 無或須與之非學也 學者誠能惕念孜孜 無一時之間斷然後 庶乎仰不愧於天爾.”

### 3.2.3.1 『金華鄭氏家範』

이 가훈의 내용에는 특이하게 집안의 여성들을 훈육하고 경계하는 조목이 많이 포함되어있다. 이는 『日用輯要』의 다른 부분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것들이다. 몇 개의 조목을 소개한다.

자손 중에 아내와 자식이 있는 자들은 다시 침을 두어 위아래의 본분을 어지럽히지 못한다. 위반하는 자는 꾸짖는다. 그러나 만약 나이가 40이 되어서도 자식이 없는 자들은 1명을 두도록 허락하는데 함께 公堂에는 앉지 못한다.<sup>33)</sup>

여러 부인네들은 반드시 편안하고 자상하며 공경해야 하니, 시부모를 효성으로 받들고 남편을 예의바르게 섬기고 동서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무슨 일이 없으면 中門을 나가지 않으며 밤에 다닐 때에는 촛불을 켜야 한다. 촛불이 없으면 그만둔다. 만약 음탕하거나 버릇이 없다면 마땅히 쫓아내야 한다. 투기하거나 말이 많은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가르치고, 가르쳐도 뉘우치지 않으면 꾸짖고, 꾸짖어도 뉘우치지 않으면 쫓아낸다.<sup>34)</sup>

여러 부인네들은 자식을 기를 때, 큰일이 없으면 반드시 직접 아이에게 젖을 주어야 한다. 유모를 두어 자식을 먹이면 안 된다.<sup>35)</sup>

여자 아이들은 나이가 8세가 되면 어머니를 따라 외가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까운 친척의 집이라도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위반한 자는 그 어머니에게 중한 벌을 준다.<sup>36)</sup>

남녀 간에는 변소를 같이 쓰지 않으며, 함께 목욕하지 않음으로써 혐의를 삼가

33) 黃德吉, 『日用輯要』, 『金華鄭氏家範』. “子孫有妻子者 不得更置側室 以亂上下之分 違者責之 若年四十無子者 許置一人 不得與公堂坐.”

34) 黃德吉, 『日用輯要』, 『金華鄭氏家範』. “諸婦必須安詳恭敬 奉舅姑以孝 事丈夫以禮 待娣姒以和 然無故不出中門 夜行以燭 無燭則止 如其淫狎 即宜屏放 若有妬忌長舌者 姑誨之 誨之不悛則責之 責之不悛則出之.”

35) 黃德吉, 『日用輯要』, 『金華鄭氏家範』. “諸婦育子 苟無大故 必親乳之 不可置乳母 以餓人之子.”

36) 黃德吉, 『日用輯要』, 『金華鄭氏家範』. “女子年及八歲者 不許隨母到外家 雖至親之家 亦不許往 違者重罰其母.”

한다. 봄과 여름에는 10일에 한 번 목욕하고 여름과 가을에는 구애받지 않는다.<sup>37)</sup>

이상과 같이 황덕길은 여성을 가르치는 내용이 있는 가훈을 부록에 첨부시킴으로써 교육에 있어서의 균형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 3.2.3.2 「倪正父經鉏堂家訓」

이 가훈은 ‘歲計’, ‘月計’, ‘子孫計’의 조목으로 되어 있는데, 검소함을 강조하고 집안 살림을 해나가는 원칙을 말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잣집에는 부잣집의 계획이 있고, 가난한 집에는 가난한 집안의 계획이 있다.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면 궁핍하지 않게 되고, 일정하게 써서 남으면 뜻밖의 쓰임에 대비해 미리 저축할 수 있다.<sup>38)</sup>

한 집안의 쓰임새는 미리 헤아릴 수 있으나 오직 뜻밖에 쓰는 것은 미리 헤아릴 수 없다. 결혼하는 일 같은 것은 자식들이 스스로 주장할 수 있으나, 상례와 장례는 갑자기 생기는 일이므로 옳지 못한 말에 마음이 움직여 헛되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효도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세속의 견해는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 마땅히 집안의 넉넉함과 검소함을 따라야 한다.<sup>39)</sup>

앞의 「陸梭山居家制用篇」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실학을 중시하던 안정복 학파의 영향으로 인해, 이처럼 실질적인 내용의 가훈을 부록에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

37) 黃德吉, 『日用輯要』, 「金華鄭氏家範」. “男女不共團溷 不共湑浴 以謹其嫌 春冬則十日一浴 夏秋不荀.”

38) 黃德吉, 『日用輯要』, 「倪正父經鉏堂家訓」. “富家有富家計 貧家有貧家計 量入爲出 則不至乏用矣 用常有餘 則可以預儲意外之用矣.”

39) 黃德吉, 『日用輯要』, 「倪正父經鉏堂家訓」. “人家用度 皆可預料 有橫用不可預料 若婚嫁之事 是閑暇時 子弟自能主張 若乃喪葬倉卒之際 往往爲浮言所動 多至妄用 以此爲孝世俗之見 切不可徇 則當隨家豐儉也.”

#### 4. 특징 및 의의

황덕길은 스승 안정복이 강조한 ‘下學’의 가르침을 깊이 생각하면서 스스로의 공부를 반성하는 한편, 이전의 훈몽교재를 살펴보면서 초학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교재를 편찬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편찬된 것이 『日用輯要』이다. 이 책은 안정복의 『下學指南』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황덕길만의 편찬 방식과 의도가 있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독자성이다. 황덕길은 『下學指南』의 체재와 달리 본록, 속록, 부록의 체재를 확립하고 각각 뚜렷이 구별되는 내용을 배열함으로써 책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것은 『下學指南』에서 안정복이 제시한 가르침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결과로 인정할 수 있다.

황덕길은 이전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첨가해서 말했는데, 여기에 완성된 책을 만들겠다는 황덕길의 의지와 도서편찬자로서의 자세가 담겨 있다. 그리고 인용한 글의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자신이 보충하여 첨부했는데, 여기에서도 적극적인 도서편찬자의 면모를 볼 수 있다.

황덕길은 아무리 주자를 존중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주자를 앞세우지는 않았다. 독서에 관한 내용은 주자의 견해보다 程端禮의 말을 앞세웠고, 作文法의 경우도 주자의 글보다 呂居仁의 글을 먼저 수록했다. 이것도 역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황덕길의 편찬 방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日用輯要』는 『初學可考』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初學可考』보다 『日用輯要』가 먼저 편찬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日用輯要』의 편찬을 마치고 나서 더욱 기초적인 초학자 교육 교재를 편집·저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므로 『初學可考』를 편찬했을 것이다. 『日用輯要』는 유학자로서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고 일상에서의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初學可考』는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학동들에게, 유학을 공부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황덕길은 가장 기초적인 교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이로 인해 이 책이

저술되었을 것이다.<sup>40)</sup>

## 5. 결 론

下廬 黃德吉은 조선 후기의 중요한 도서편찬자 및 저술가이다. 전형적인 유학자였던 황덕길은 도서의 편찬과 간행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 스승인 안정복이 초학자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정리한 『下學指南』의 영향을 받아 『日用輯要』를 편찬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결론으로 대신한다.

『日用輯要』는 儒學을 처음 배우는 童蒙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여러 예절과 마음가짐, 학문을 대하는 자세 등에 대해 이전의 학자들이 언급한 내용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선별·편집하여 완성한 교육 교재이다.

『日用輯要』가 『下學指南』의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황덕길은 확실한 의도를 갖고 本錄과 續錄, 附錄으로 분류하여 편찬하여 독자성을 추구했고, 이로 인해 『下學指南』을 답습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황덕길만의 책이 만들어 질 수 있었다.

『日用輯要』의 체재를 살펴보면 황덕길이 도서 편찬의 원칙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本集에서는 인간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도리와 예절 등을 강조한 가르침을 선별하여 수록했고, 속집에서는 유학자로서의 조건을 갖추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언급한 자료를 모아 놓았다. 속집의 내용은 대부분 讀書, 作文, 作詩, 書寫, 科擧文 등에 관한 것이어서 당시의 사회에서 유학자로 살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지니고 있어야 할 사항이었다. 그리고 부록에는 두 편의 家訓을 수록하여 본집 및 속집의 내용과는 차이를 두었다.

『日用輯要』의 구성 방식은 이전 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하고 황덕길 자신의 견해를 첨부했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도서편찬자로서의 면모가 담겨 있다. 황덕

40) 김순희, “下廬 黃德吉의 『初學可考』 고찰,”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232.

길은 인용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자신이 經傳의 다른 부분에서 발췌해서 보충하였다. 이로 인해 책의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었다.

星湖 李瀾에서 안정복으로 이어지는 實學의 전통을 계승한 황덕길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점도 특이하다. 본록의 『陸梭山居家制用篇』과 부록의 『倪正父經鉏堂家訓』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향약의 예절에 대한 견해나, 作文과 作詩에 대한 언급 등은 각 전공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덕길은 아무리 주자를 존중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주자를 앞세우지는 않았다. 독서에 관한 내용은 주자의 견해보다 程端禮의 말을 앞세웠고, 作文法의 경우도 주자의 글보다 呂居仁의 글을 먼저 수록했다. 이것은 실질적인 내용을 중시하는 황덕길의 편찬 방식이 반영된 결과이다.

『日用輯要』와 『初學可考』는 황덕길이 편찬·저술한, 초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교재의 대표적인 책이다. 『初學可考』보다 『日用輯要』가 먼저 편찬되었는데, 『日用輯要』의 편찬을 마치고 나서 더욱 기초적인 초학자 교육 교재를 편집·저술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으므로 『初學可考』를 편찬했을 것이다. 『日用輯要』가 유학자로서 올바른 마음을 유지하고 일상에서의 행동규범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반면, 『初學可考』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황덕길의 『日用輯要』는 그의 사상과 학문의 정수가 담긴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엄밀하고 적극적인 도사편찬자로서의 황덕길의 면모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도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국립중앙도서관. 『선본해제14, 순암 안정복』. 국립중앙도서관, 2012.

김순희. “下廬 黃德吉의 『初學可考』 고찰.”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6).

윤남한. “『下學指南』 사본.” 『순암 안정복의 서학인식과 교육사상』. 순암선생 탄

신300주년 기념사업회, 2012.

이채구. “안정복의 『下學指南』.” 『순암 안정복의 서학인식과 교육사상』. 순암선생  
탄신300주년 기념사업회, 2012.

『孟子』

安鼎福. 『順菴集』.

『朱子全書』. 上海古籍出版社·安徽教育出版社.

『中國文學家大辭典』. 臺灣: 世界書局, 民國75.

黃德吉. 『日用輯要』 (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17-167).

黃德吉. 『下廬集』.